
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	보 도 자 료	
		배포 일시	2009. 4. 16(목) / 총 3매
담당 부서	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담당관	담당자	• 담당관 이원규, 사무관 김희천 • ☎ (02)2669-6345, kimhee1000@korea.kr
보 도 일 시		2009년 4월 17일(금)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체계적인 「항공 전문인력 양성」 본격화

- 항공대·서울대 등 7개 항공 특성화 대학 선정 지원 -

- 정부가 “항공인력 양성”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해양부(장관: 정종환) 및 한국항공진흥협회는 4월 16일 「항공인력 양성사업(Haneul Project)」의 지원 대상으로 항공대, 서울대 등 7개 대학을 선정했다.

※ 항공기술인력 양성 분야 (4개 대학) : 항공대, 서울대, 경상대, 전북대
 ※ 국제항공전문가 양성 분야 (3개 대학) : 항공대, 인하대, 한국외대

- 2009년~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우주기술인력 약 600명, 국제항공전문가 약 300명 등 전체 900명 수준의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※ '09년은 180명(항공우주기술인력 120명, 국제항공 전문가 60명)양성계획

- 선정된 대학은 5월중으로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동 과정을 석사과정으로 개설하여 2009년 2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.

-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5년간 80억원('09년 16억원)을 각 대학에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며,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의 최소 25% 이상의 대응자금(Matching Fund)을 부담하여 교육 운영비·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.

※ 지원 세부 계획

- 항공우주기술인력 분야 : 대학 당 5년간 10억원 지원 (연 2.5억원)
- 국제항공 전문가 분야 : 대학 당 5년간 6억원 지원 (연 1.2억원)
- 주관사업기관(항공진흥협회)의 항공기초교육과정 운영 지원 (연 2억원)

- 국제항공전문가 양성 분야의 대학은 어학은 물론 국제 항공법·제도·국제관계 등의 심화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활동 저변을 확대하는 인력 양성을 계획 중이며,
 -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 분야의 대학은 항공기 제작·인증인력, 공항운영시스템 등의 교육을 통해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- 국토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진흥협회를 주관사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각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기초 공통교육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며,
 - 주관사업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특성화대학의 인력양성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.
- 이번에 추진되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은 인력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산업 발전의 저변을 마련함으로써

항공업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,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 별첨 >

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

□ 위탁기관 협약 체결 (대학 및 주관사업기관) : '09년 5월

□ 교육과정 준비 (위탁기관 별) : '09.5 ~ '09.6

○ 위탁기관 별 '09년 세부 교육 계획 수립 : '09.5

○ 교육생 모집 : '09.5 - '09.6

○ 강의 프로그램 준비 : '09.5 - '09.6

□ 교육 개시 : '09.7

○ 기본 교육 : 09.7 - 09.8 (항공진흥협회)

○ 심화 교육 : 09.9 ~ (특성화대학)